

# 롯데마트 광주상무점 양심불량 운영 물의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 영업정지·과징금 방침 주차장 장사 논란... 유료로 전환, 업체에 월권 판매

롯데마트 광주상무점이 유통기한을 넘긴 가공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상무점은 또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데 이어 주차장 상당 부분을 인근 업체에 월권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22일 유통기한을 넘긴 가공식품(수제 초콜릿 아이스크림 재료)을

고객에게 판매한 롯데마트 상무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상무점은 지난 6월4일 광주시 북구에 사는 A씨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가공식품(190g)을 판매했다. 하지만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2일까지로, 유통기일을 24일 지난 식품이었다. A

씨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7월 2일 광주 서구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서구는 같은 달 29일 현장 조사를 나가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광주 서부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9일 지점장 김모(45)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구는 또 지난달 4일 서면으로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업체 측 입장을 들었지만,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을 판매한 롯데마트 상무점은 고객 주차장 장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지난 2010년 개점 당시 68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서 지난 6월부터 200~300개 주차면을 인근 보험사 측에 월권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고객 주차장을 주차 시간과 소빙 액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로 전환해 고객 만족보다는 수익

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유통기한 초과상품 판매와 고객 주차장 월권 판매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통과 이후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주차장 월권 판매 논란이 제기돼 법적 검토를 했지만, 주차장 영업 행위에 대해 롯데마트 측의 양심 불량을 지적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근거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5·18 북한 배후’ 왜곡 허위 보도 ‘뉴스타운’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법원에 인터넷 언론 매체 ‘뉴스타운’의 호의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월 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 등은 22일 “뉴스타운이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뉴스타운의 호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호의에 실린 허위 주장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4개 지면으로 된 호의 1, 2, 3호를 각각 10만 부씩 발행해 지난 7월1일과 7월20일, 9월16일 광주시청, 전남도청, 서울 대학가, 대구, 경남 통영 등에 배포했으며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5·18 기념재단 측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만원이 호의 1호는 80년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인 ‘광수(북한군 계급)’가 84명에 이른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광수’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은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씨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쓴 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칭 언론이라는 뉴스타운은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추석 연휴 3199만명 대이동...작년보다 더 혼잡

### 서울~광주 7시간 예상 서울~목포는 9시간20분

올 추석 연휴에는 3199만명이 이동하며 고속도로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지난해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나 서울~광주는 7시간이 예상된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6일(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7일(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추석 기간 하루평균 이동 인원은 640만명으로 지난해 588만명보다 8.8% 늘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46만대로 예측됐다. 교통수요조사 결과, 예년보다 짧은 연휴 기간(4일),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이용객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귀성·귀경길 교통 혼잡을 가중 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83%) 다음으로는 버스 12.2%, 철도 3.6%, 항공기, 여객선 각각 0.6%로 조사돼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동 수단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귀성길 대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까지 4시간20분, 광주까지 7시간, 목포까지 9시간20분 등이다. 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에서 3시간40분, 광주에서 6시간20분, 목포에서 7

시간40분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대비 귀성길은 2시간40분 증가하고 귀경길은 10~50분가량 감소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25~29일) 하루 평균 고속버스 1821회, 철도 51회, 항공기 35편, 여객선 306회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시간 교통상황 안내,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추가 설치 등 대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 들어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추석 연휴기간 예상 교통비용은 작년 16만원에서 올해 14만1000원으로 줄고 해외 출국자 또한 작년 추석대비 하루평균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호기자 khh@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유통관리과 직원들이 2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에서 제수용품에 쓰이는 밤, 대추 등의 원산지 표시 및 품질을 단속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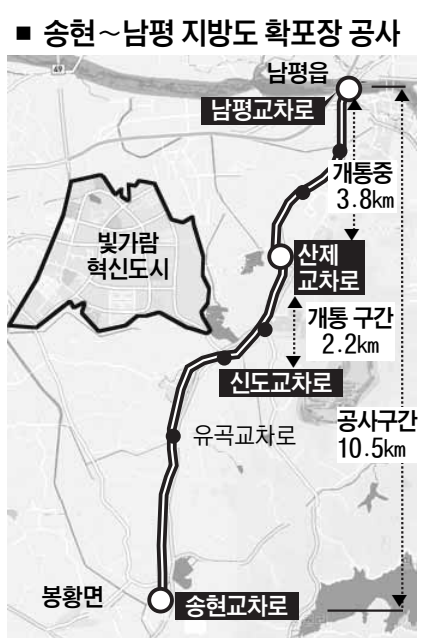
### ‘17명 화재 사상’ 담양 펜션 운영자 부부 항소 기각

바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H펜션 운영자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업)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담양 H펜션 주인 최모(56)씨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부인 강모(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펜션 구조물이 화재에 취약했는데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처벌을 단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 부부에 대한 원심 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 부부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9시 40분께 담양 H펜션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한가위 나주 혁신도시 진입 편해진다

### 산제~신도교차로 오늘 개통

전남도는 22일 “추석을 앞두고 ‘송현~남평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 중 나주 산포면 산제교차로에서 혁신도시 동측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신도교차로까지 2.2km 구간을 23일 정오부터 부분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개통한 남평오거리에서 산제교차로 구간 3.8km 이어 추가로 2.2km를 더해 총 6km가 개통하게 됐다. 2008년 4월 착공한 ‘송현~남평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으로 나주 봉황면 죽석리에서 남평오거리까지 10.5km 4차선 도로다. 총사업비 1030억원을 들여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귀성객 교통 편익은 물론 혁신도시 교통체증 조기 해소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농업박람회를 대비해 조기 개통한 것이다. 최봉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남평~영남 간, 영광 법성~홍농, 광양 중



송현~남평 지방도 확포장 공사 남평교차로 개통중 3.8km 산제교차로 개통구간 2.2km 신도교차로 공사구간 10.5km 봉황면 송현교차로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차량전복 구조 50대 음주 들뜸

○~차량 전복 사고를 낸 50대가 시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이후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재빨리 출렁렸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에게 결국 들킨다.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15일 밤 10시18분께 광산구 쌍암동 모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8%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 ○~사고 뒤 전복된 자신의 차량에서 울쭉달짝 못하던 A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과 119구조대원들이 전복된 차를 들어올리면서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현장을 황급히 피하려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들에게 붙들려 경찰에 인계되면서 음주 운전 사실이 탄로.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문화복합시설 펜션·식당·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매매-22억 감정가/시세-30억원  
대출 - 12억 5천만원 포함(연3%)  
법인체 인수가 (이전비 없음)  
1년 후 20억 정도 대출 가능
- 추가 형질변경가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